

[ 종합 ]

# 광주 중대형 주택 수요 2012년 이후 줄어든다



## 주요 수요층 40~50대 35만명 정점 감소

최근 수도권 '집값 광풍'으로 인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형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40~54세의 향후 인구 변화 모습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해당 연령대 인구가 향후 16년 이상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광주·전남 등 대부분의 지방 시·

도는 불과 5~6년 뒤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인구변화에 따른 적절한 주택 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40~54세 인구는 향후 7년간 꾸준히 늘어나 오는 2013년 1천259만4천7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에는 1천191만7천3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측

됐다.

이는 광주·전남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이 연령층 인구가 올해 31만500명에서 2009년 33만2천300명, 2012년 34만9천600명까지 늘어나 뒤늦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류된 뒤 재상정돼 오는 30일 또다시 심의된다.

게 된다. 불과 3년 뒤부터 중대형 주택의 수요계층이 꾸준히 줄어드는 셈이다.

수도권의 이 연령층은 현재 558만9천100명에서 2009년 607만4천4천300명, 2015년 664만1천700명에 이어 오는 2022년에는 677만4천7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15년간 해당 연령층만 118만5천600명(21%)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도권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향후 20년 가량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곡성 반구정 습지 모습. 보성강 직강하 공사로 인해 습지가 된 이곳은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로 남아있다. (곡성군 제공)

##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 유산'

### 곡성 '반구정 습지' 환경부장관상

곡성의 '반구정 습지'가 27일 한 국내서널리스트가 주최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시민공모 시상에서 최고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와 목사동면 대곡리 일대 보성강변에 위치한 반구정 습지는 총 1만㎡의 면적

에 수변식물이 풍부해 국내 몇 안되는 '꼬마 잡자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 버들방어 등 휘귀 습지어류와 다양한 개체의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방류로 습지 생태계가 오염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습지는 사형천이던 보성강의 물줄기를 직강공사 하면서 생겨났으며, 습지 내에는 조선 후기 보성강변에 세워진 '반구정(伴壟亭)'이란 정자가 있다.

한편 광양 동호습지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으며 잘 가꾼 문화유산 부문에 선정됐던 영안구림마을은 내셔널 트러스트상을 수상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오를듯

광주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8일 "불합리한 요금 체계 개선과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업종 구분이 애매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함과 동시에 사용량 당 부과 체계를 5단계

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가정용의 경우 10t까지는 340원(1당)에서 380원으로 11.7%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t당 332원에서 360원으로 8.5% 오른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류된 뒤 재상정돼 오는 30일 또다시 심의된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김익한 일가 고문 등 2건 과거사위, 진실규명 키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김익한 일가 고문사건에 대해 위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해 복한을 고문·동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여수출장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익한씨 등 가족 3명을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61년 혁명재판소

가 조 사장에게 '사회대중당 간부로서 복한의 활동에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조 사장은 사회대중당 간부가 아니고 사설을 통해 복한을 고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1971년 9월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수사관들이 여천군 화정면 섬마을에 사는 김익한씨와 조카 김모(여)씨, 김씨 동생의 아내인 김모(여)씨 등 3명을 간첩 관련자로 보고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는 진정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제이유' 수사 전면 확대

### 정 검찰총장, 가용인력 총동원 엄정수사 지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28일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이 사상 최대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검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권력기사5면)

정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약 33만명이 연루되고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전날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과 김진도 형사6부장으로 부터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이유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6부 김진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었던 수사팀에 공안담당 검사 2명과 부부장 검사 한 명을 더 투입해 수사팀 검사를 7명으로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이유 그룹의 불법 영업과 사기, 횡령 등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데 라 로비 수사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제이유의 로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로비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회계분석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법률용어 쉽게 고친다

### 내년부터 250여건씩 정비

"수득(取得)하다"는 '거취하다', '적의(適宜)한'은 '알맞은', '양하(揚荷)는 '짐 내리기', '폐질(廢疾)은 '장애', ...

고개를 가우뚱하게 했던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들이 앞으로는 법전에서 대거 퇴출되고 한층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 표현을 바꾼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법제처가 법률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정한 조항을 선정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첫해 성과로 이뤄진 것. 법제처는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천100여건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못해 먹겠다

## 석유 의존도 35%로 낮춘다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9%선으로 대폭 올리며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 에너

지 계획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부개발률이 35%로 높아져 국내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 가스 등 국내 기업의 개발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전화: (062)227-9600 • FAX: 227-9500

전라남도 경제를 이끌어갈 정부부지사를 모집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주) 국제건설신업개발

대표이사 최보성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2006년 11월 28일

(주) 국제건설신업개발

산행안내

광주광역시

www.lawbig.co.kr

채무/압류/추심 해방!!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

전인친클럽 직원모집

문화도시 광주에서 "전인친 클럽"을 open합니다.

1. 모집부서

2. 모집기간

3. 제출서류

(주)전인친 기획

www.lawbig.co.kr

무료설명회 안내

대상: 빚에 시달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